



즉시 배포용: 2021년 2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롱아일랜드의 뉴욕 아메리칸 워터 컴퍼니의 공공 매수 가능성에 대한 선행 조사를 고객 보호 특별 고문에게 지시

*특별 고문은 롱아일랜드 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화 가능성에 대한 공공 서비스부의 조사를 진두지휘하고 4월 1일까지 보고서 발행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공공 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Public Service)의 Rory I. Lancman 고객 보호 특별 고문에게 롱아일랜드 대의 민간 수도 기업인 뉴욕 아메리칸 워터 컴퍼니 주식회사(New York American Water Company, Inc)의 공영화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두지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롱아일랜드의 뉴욕 아메리칸 워터 고객 120,000명은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뉴욕은 즉시 필수 공공재에 대한 고객 부담을 낮추고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며, 이러한 선택지에는 공공 매수도 포함됩니다. 뉴욕 주민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저렴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공공 서비스부는 현재 뉴욕 아메리칸 워터를 다른 민간 유틸리티 기업인 리버티 유틸리티 기업(Liberty Utilities Co.)에 매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버티라는 대안이 등장하면서 공공 매수 가능성에 대한 지역의 강한 관심이 촉발되었습니다. 시클리프와 마사페쿠아 등 몇몇 지자체는 뉴욕 아메리칸 워터의 시스템 일부 인수 가능성 분석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11월 도입된 유틸리티 개혁 법안에 아메리칸 워터에 대한 공공 매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2021년 4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지사는 즉시 연구를 시작할 것을 공공 서비스부에 지시했습니다.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의 John B. Rhodes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러한 소비자의 과도한 수도 비용 부담이라는 시급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공공 인수에 따라 소비자가 받게 되는 가장 큰 이득은 유틸리티 비용이 면세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비용을 낮추는 것이 공공 서비스부의 최대 과제입니다."

Rory I. Lancman 고객 보호 특별 고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고객

보호에 대한 일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롱아일랜드의 뉴욕 아메리칸 워터 컴퍼니를 전부 또는 일부 공영화하는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분석 결과는 주지사, 위원회, 입법부, 지방정부 공무원, 고객에게 장기적으로 수도 비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수를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Lancman 특별 고문이 수행하는 연구에는 공개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이 포함됩니다. 연구는 4월 1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뉴욕 아메리칸 워터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미터식, 기타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나소, 퍼트남, 설리반, 얼스터, 워싱턴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일부 지역에서 공공 및 민간 화재 방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메리칸 워터는 롱아일랜드의 약 120,000명의 고객을 포함하여 시스템 전체에 약 124,000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